



KIA 타이거즈가 3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17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헥터를 선발로 내세운 KIA는 새로운 4번 타자 최형우를 중심으로 한 막강 타선으로 개막전 승리를 노린다.

(KIA 타이거즈 제공)

‘4번 타자’ 최형우, 친정에 비수 꽃아라

KIA, 오늘 대구서 삼성과 격돌

카운트 다운은 끝났다. KIA 타이거즈의 ‘V11’을 향한 도전이 31일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31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2017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시즌 첫 승부는 ‘특급 외국인 선수’ 헥터 노에시가 책임진다. 상대는 올 시즌 한국 무대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외국인 선수’ 재크 페트릭이다. ‘노련함’과 ‘낯설’을 무기로 개막전 마운드 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양 팀 모두 예상치 못했던 부상 변수로 100%의 전력을 꾸리지는 못했다. KIA에서는 시범경기에서 불꽃 타격을 선보이던 내야수 안치홍이 옆구리 염좌로 시즌 출격 시점을 며칠 마뒀다. 큰 문제는 없다. 안치홍은 30일 챔피언스

헥터-신입 재크 페트릭 선발 맞대결

양팀 부상 변수에 100% 전력 못꾸려

필드에서 진행된 고사에 참여한 뒤 다른 선수들과 정상적으로 타격, 수비 훈련을 소화했다. 대구로 가는 버스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오는 4일 광주에서 열리는 SK 와이번스와의 홈 개막전에 맞춰 엔트리에 합류할 예정이다. 안치홍의 출발이 늦어졌지만 전력의 큰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주전 2루수로 활약했던 서동욱이 등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성의 부상은 마운드 운영에 큰 변수가 됐다. 개막전 선발로 예상됐던 앤서니 레나도가 가래듯 부상으로 빠지면서 페트릭이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자연히 선발 로테이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타석에서는 ‘4번 타자’의 자존심 싸움이 흥미롭다. FA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온 최형우는 이적 후 첫 타석을 익숙한 친정에서 맞이하게 됐다. 친정팀을 상대로 ‘호랑이 군단’의 4번 타자로 서게 된 최형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기대된다. 최형우가 빠진 삼성 타선의 ‘4번’ 역할은 새 외국인 선수 다린 러프가 맡았다. 홈 팬들 앞에서 공식적인 한국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러프와 적이 되어 돌아온 최형우의 힘겨루기다. 앞선 시범경기에서 러프는 유일하게 KIA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7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물러났던 러프가 약세

를 이어갈지, 반전의 타격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불펜에서는 11년 입단 동기인 한승혁(KIA), 심창민(삼성)에 눈길이 쏠린다.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프로에 입단한 날부터 똑같이 있었다. 그동안 심창민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심창민은 팀의 마무리를 넘어 WBC대표팀의 대표 선수로까지 우뚝 섰다. 반면 한승혁은 기대와 실망을 오가면서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안정감을 더하며 필승로즈 발돋움한 한승혁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다. 157km의 강속구를 앞세워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KIA 불펜의 핵심 선수로 급부상했다.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를 두 사람의 성적에 따라서 두 팀의 개막전 성적표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순철 해설위원이 보는 ‘2017 KIA’
“공격력·3선발까지는 완벽하다
2번·포수 숙제...‘불펜 키’ 한승혁”



냉철한 분석과 입담의 이순철 SBS 해설위원이 KIA의 2017시즌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2번, 포수 그리고 한승혁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KIA의 선수층이 넓어지고 탄탄해졌다고 말한다. 그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최형우의 영입으로 공격력이 좋아졌다. 선수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포지션 등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번’과 ‘포수’ 숙제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2번 타선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타선의 힘이 달라진다. 젊은 투수가 많아서 포수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포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 중요하다.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긴박한 승부에서는 공 하나에 승패가 갈린다. 눈에 안 보이는 전력이지만 중요한 전력이다”고 언급했다. 마운드는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한 카드 대신 가능성의 젊은 투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진우, 윤석민이 빠져있는데 이들의 복귀를 염두에 두지 말고 지금 젊은 선수들로 잘 꾸려가야 한다. 김진우는 오랜 공백 탓에 마음과 달리 부상이 자주 수밖에 없다. 윤석민도 아킬레스건이 좋지 못해 리빙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그 여과도 있을 것이다. 우승을 하려면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혁의 이름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위원은 “공격력과 3선발까지는 완벽하다. 젊은 투수들이 4~5선발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한승혁이 불펜의 키를 쥐고 있다. 나이 많은 선수들은 부상 위험, 구위 저하 등 변수가 많다”며 “한승혁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승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것이다. 투구폼이 간결해지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졌다.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시범경기 중계를 한 날 (한승혁이) 연투를 했는데 스피드 등이 떨어지는 모습이였다. 연투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욕심 버리고 희생하며 더 높은 곳 보겠다”

주장 김주찬 시즌 각오

KIA 타이거즈의 ‘캡틴’ 김주찬이 ‘무심(無心)’으로 2017시즌을 맞는다. 김주찬에게 올 시즌은 도전의 시즌이다. 말은 억울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팀을 대표하는 주장으로 선수단 전면에 서게 된 그는 최형우가 외야에 들어오면서 익숙한 좌익수가 아닌 우익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 또 ‘특별한 스승’ 김기태 감독의 재계약이라는 간절한 목표도 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이 아닌 무심을 말한다. 김주찬은 “정말 올 시즌은 특별한 욕심이 없다. 어떤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무조건 아프지 않고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 그거 말고는 다른 욕심이 없다”며 “우리 선수들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준비한 대로 하자는 생각이다. 욕심 내고 그러면 힘 들어가고 그러니까 준비

했던 대로 편하게 실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또 팀을 위해서 조금씩만 더 희생하면서 더 높은 곳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장, 우익수로의 변신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주찬은 “고등학교 때도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됐다(웃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내가 잘하고 술선수범해야 후배들도 보고 배우는 것이다”며 “우익수로도 잘 준비하고 있다. 팀 상황이 있으니까 기꺼이 해야 한다. 좌익수에 있을 때 좌측으로 휘어 들어오는 공보다 우익수 쪽에서 오른손 타자가 오른쪽으로 친 공이 휘는 각이 훨씬 큰

것 같다. 그게 좀 다른 데 큰 문제는 없다. 감독님이 배려 잘 해주시니까 가끔 지명타자 역할도 맡겨주실 것 같다. 체력적인 격정은 없다”고 말했다.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는 김주찬이지만 결코 쉬운 상대는 없다고 말한다. 김주찬은 “다른 팀들도 전력 보강이 잘 됐다. 시범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끼리 상대 팀들의 예상 멤버를 짜봤는데 다들 만만치 않다”면서도 “팬들이 많이 기대하시는데 우리 선수들도 기대감이 크다. 준비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